

2020년 8월 2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34편 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1~2절)

◎ 찬 송 / 382장(통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03 - “의의 호심경”

두 번째 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호심경, 곧 의”가 됩니다. 호심경은 로마 군인의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인간의 가슴에는 손상이 되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심장이 있어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상징적 의미가 큼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들이 전투 중에 착용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겁니다. 호심경은 싸우는 사람들에게 안전을 증가시키면서 전투의 자신감을 더해 줍니다. 군인의 사기를 높여 주고 두려움을 없애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는 영혼의 갑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의는 영혼의 심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의로움”은 하나님 혹은 인간을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총체적으로 가리킵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행합니다. 또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 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를 갑옷과 함께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의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쉬네”로서 의의 실천적인 용도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기준으로써 의를 갓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며, 그 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는 구원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누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의는 인간이 스스로 갓출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심판대에서 심판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만족할 의를 갓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전가 받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전가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될 수 있다는 해석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고 무죄한 삶은 영벌이라는 심판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의 완벽한 삶과 순종을 통하여 드러진 완벽한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후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는 의의 기준을 갖추는 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의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인 의의 기준에는 율법을 지킨 결과만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의 순전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의인데, 이는 전가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의는 인간의 본성에서는 잃어버려 없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이 의를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 얻게 됩니다. “복음의 의”는 전가 받은 것이기에 더 세심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칭의의 과정을 걸쳐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은 세상에서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곧 영생입니다. 육체의 심장이 생명이 잉태 될 때에 뛰기 시작하듯이 영혼의 심장은 우리가 거듭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얻을 때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의롭다함이 선언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예수님의 심장이 갓 태어난 성도에게 이식되고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심장이 잘 작동해야 생존할 수 있듯이 영혼의 심장이 잘 박동해야 영혼의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칠 때 작동을 멈추지만, 의의 심장은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시작된 작동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영적인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적인 심장이 박동하면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심장이 힘차게 박동할수록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정은 더욱 강렬해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옷을 삼는다는 표현에는 전신 감주와 입는 것과는 다른 단어 “호벨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옷을 입은 결과는 본문의 의의 감주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죄를 그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는 이를 거룩함을 지향하는 모습과 연결했습니다. 의의 심장은 성도가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박동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의의 심장이 박동하고 있다면 그 결과와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기에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실에 거룩함이 없다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영혼의 심장도 힘차게 박동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의의심장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의로운 삶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전한 순종과 전심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사람들 사이에는 공의롭고 올바르며, 긍휼한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한주간도 더욱 강하고 튼튼한 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더욱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하며 많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57장(통397)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폐 회 / 주기도문